구미래의 새롭게 만나는 불교의례 ⑰ 선방생활



▶한줄 요약
결제가 선방에서 '깨달음을 구하는 상구보리(上求菩提)의 수행'이라면, 만행은 세상으로 나가 '중생을 교화하는 하화중생(下化衆生)의 포교'라 하겠다.

"공부는 대중이 시켜준다"

수선안거(修禪安居)의 전통

스님들은 여름 · 겨울의 안거 철이 되면 선방(선원)을 찾아다니며 안거에 든다. 선방에서 참선 정진하는 스님들을 수좌(首座) · 납자(衲子)라 하며,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면서 선을 닦는다고 하여 선객(禪客)이라고도 부른다.

선객들은 머물고자 하는 사찰에 먼저 허락을 얻게 되는데, 이를 '방부(榜付)들인다', '입방한다'라고 표현한다. 방부는 '용상방(龍象榜)에 이름을 붙인다'는 뜻이고, 입방은 '入榜'과 '入房'이 두루 쓰인다. '入房'은 선방에 들어간다는 말이고 '入榜'은 용상방에 이름이 든다는 말이니, 일관된 의미로 보아 '入榜'이 더 적합하다. 마찬가지로 방부를 '房付'라고도 표기하나 '榜付'가 본래의 뜻이다. 중국 선종 사찰에서는 방부와 같은 말로 '괘탑(掛塔)'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괘탑이란 발우가 담긴 걸망을 건다는 말로, 선방에 마련된 각자의 자리에 발우를 걺으로써 대중생활을 위한 자격이 주어진다는 뜻이다.

규모 있는 사찰마다 손님을 안내하는 지객(知客)의 소임을 두는데, 선방에서는 이들이 방부를 받는다. 예전에는 방부를 쉽게 들이지 않고 일종의 통과의례를 거치기도 하였다. 며칠간 대중생활을 하게 해 근기를 시험하거나, 특별한 의식문을 염송케 하는 선방도 있었다고 한다. 안거가 시작되면 본채 스님들은 선방 수좌들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양과 뒷바라지에 힘쓰게 된다.

스님들은 같은 뜻을 지닌 출가자들이 모여 함께 수행하는 것을 더 없는 청복(淸福)으로 여겼다. 예로부터 '대중이 공부시켜 준다', '대중은 신장(神將)과도 같아서 그 속에 있기만 해도 정진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여법한 수행 분위기는 서로에게 큰 힘이 되고 수행의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1960년대 부산 선암사 선방에 처음 방부를 들였던 한 스님은, 함께 정진하는 수좌들에게서 생사 일대사를 해결하려는 절실함이 저절로 느껴졌다. 선방 수좌들이 모두 부처님이라는 생각으로 용맹심이 났고, 소임을 짤 때 후원 일을 맡아 공양 짓기에 최선을 다했다. 1940년대 후반 출가해 행자로 살던 고봉 스님 또한, 맑은 눈빛으로 단아하게 가부좌를 튼 해인사 선방 수좌들의 모습에 신심이 절로 솟았다. 참으로 힘든 시절이었지만 하나같이 눈 푸르게 정진하는 그들을 보면서, '춥고 배고플 때 발심한다'는 말을 두고두고 절감했다는 것이다.

선방의 규율은 엄하기로 이름 높다. 용맹정진 때는 물론, 평시도 하루 열 시간 남짓 참선에 들다 보면 졸음이 가장 힘들기 마련이다. 따라서 조는 이들을 경책하기 위한 용도로 선방마다 빠짐없이 '장군죽비'를 갖추었다. 장군죽비는 수좌들끼리 순서를 정해 불침번을 서며 서로 경책할 때 사용하거나, 방장 · 조실이 수좌들을 경책할 때 사용했다.

해인총림의 방장이었던 성철 스님은 당시 수시로 선방을 드나들었고, 조는 이의 등줄기를 장군죽비로 호되게 내리치면서 "졸지 말고 밥값 내놔라!" 하고 호통을 쳤다. 선방 스님이 졸면서 참선하지 않는다면 절에서 공짜로 주는 밥을 먹을 자격이 없다는 꾸짖음이다. 120cm 정도 길이의 장군죽비는 물푸레나무로 만드는데, 낭창낭창하여 유연성이 좋고 때려서 잠은 깨우되 크게 아프지 않기 때문이다. 장군죽비는 유난히 잘 부러져, 해인사에서는 결제를 앞두고 일찌감치 목공소에 주문 제작을 맡기고 있다. 안거에 앞서 미리 선원과 강원에 장군죽비를 보내 경책 요령을 연습하도록 하는 것이다.

선방의 소임과 울력

안거 철의 선방은 참선 수행을 위해 한시적으로 모인 출가수행자 집단이다. 따라서 승가의 일반 대중생활보다 더욱 조심스럽고, 무엇보다 평등을 기반으로 한 화합과 규율이 중요하였다. 이에 인원이 적든 많든, 모든 대중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소임을 맡는 것이 선방의 특성이다.

근대 이후 경허 스님에 의해 선원마다 안거 대중의 법명 · 직명 · 연령 · 본사 등을 기록한 방함록(芳啣錄)을 남기기 시작하여, 선원의 전통과 가풍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시 방함록과 청규(淸規)를 보면, 각자 소임을 맡는 일과 함께 대중 울력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음을 알 수 있다. 경허 스님은 1903년 범어사 계명암 선원을 개설하면서, 17개 소임을 두고 '상하 대중이 모두 울력에 동참' 할 것을 밝혔다. 한암 스님은 1922년에 개설한 건봉사 선원의 청규에 '울력에는 마땅히 나가며, 빠져서 대중의 마음을 동요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1923년부터 학명 스님이 운영한 내장사 선원에서는 황무지를 개간해 본격적인 반선반농(半禪半農)의 삶을 실천하였다. 하루를 오전학문 · 오후노동 · 야간좌선으로 나누고, 동안거에는 좌선을 위주로 하며 하안거에는 학문과 노동을 위주로 한 규범을 세워나갔다. 이 외에도 방함록 직명에 농감(農監) · 농막(農幕) 등을 둔 곳이 많아, 선농일치에 근거한 선원 운영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좌선하는 스님들과 장군죽비를 들고 졸음을 경계하는 송광사 선방 모습.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출가자들 함께하는 수행은 큰 힘
엄한 선방 규율 이겨낼 동력 돼
선방 대중 모두 소임 맡는 특성
점차 수행 전념 · 울력 최소화 변화



김장을 하는 대흥사 스님들.

이처럼 근대 초 울력을 강조하는 '선농일치'의 풍토는 선원에서 비롯되었다. '점심공양 하고 나면 수좌들도 울력 나가기에 바빴다'는 노스님들의 말처럼, 1970~1980년대까지 선방에서도 본채 대중과 함께 움직였다. 후원 소임 또한 원주는 본채 스님이 맡고, 선방에서 공양주 · 채공 · 갱두 등을 돌아가며 맡는 곳도 많았다. '선방 소임은 일주일씩 살고 강원 소임은 3일씩 산다' 하여 기간은 대개 일주일 · 열흘이었고, 노스님과 젊은 스님이 짝을 이루어 음식 전수도 이루어졌다. '선방 수좌가 약단지 갖고 다니는 건 수치'로 여기는 분위기 또한 팽배하여, 어지간히 아파도 병원이나 약국에 가지 않고 버티던 시절이었다.

그러다가 1990년대 무렵부터 점차 선방 수좌들이 공양간 소임을 살지 않고, 김장 등 특별한 일 외에는 울력도 하지 않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 본채에서는 '선방 외호'의 전통에 따라 수좌들이 수행에 전념하도록 울력을 최소화했고, 시대의 변화와 함께 울력 많은 선방에는 아예 방부를 들이지 않는 추세가 되었다. 사회 전반적으로 자급자족에서 벗어난 지 오래일 뿐 아니라, 출가자의 부족으로 후원에 재가자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선방 수좌들은 정진 · 공양은 물론 취침도 대방에서 함께했지만, 근래에는 개인 승방을 두어 하루 정진 일과를 마치면 각자의 방에서 기거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이는 강원의 학인을 제외하면 대부분 사찰에서 스님마다 방을 따로 쓰는 추세와 함께한다.

노스님들은 '독방 쓰지 마라'는 어른들의 경계를 새기며 살았다. 24시간 함께하는 삶은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 심신을 가다듬는 큰 힘으로 작용하였고, 선방의 대중생활에는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었다. 그러나 하나의 대중방에서 기거하는 삶은 경제적 여건과도 밀접한 관련을 지니기에, 개인공간을 원하는 수행자들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선방에서는 가장 늦게 수용한 셈이다.

선방의 공양문화

예로부터 '선방에 음식문화가 발달했다'는 말이 전한다. 전국에서 모여든 스님들이 소임을 살 때 각자 특색 있는 음식으로 실력을 발휘했기 때문이고, 이에 솜씨 좋은 스님이 채공으로 들어가면 맛있는 음식이 나오니 모두 좋아하였다. 선방 수좌들이 몸을 상하지 않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본채에서 공양으로 뒷받침하는 문화 또한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같은 재료로 반찬을 만들 때도 조리방식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니, 수좌들이 공양간 소임을 보던 시절의 선방은 전국의 사찰음식이 교류하는 거대한 장(場)이기도 하였다. 특별한 날이면 선방과 본채 스님들이 함께 시절 음식을 만들어 먹는 풍습도 곳곳에서 펼쳐졌다. 개울가로 솥을 들고 나가서 수제비도 만들어 먹고, 제철 채소로 갖가지 전도 구웠다. 특정 작물이 날 때 선방에서 자원하여 특별식을 만들기도 했다. 여름철 아욱이 무성하면 쌀 · 아욱 · 된장에 밀가루 수제비를 떼어 넣은 아욱죽을 끓이고, 상추 대궁이 높게 올라오면 잘라내어 한두 시간 만에 먹을 수 있도록 맛있는 상추김치를 만들었다.

선방의 노스님들 가운데 음식에 해박한 이들이 많아, 스님들은 스스로 '선방은 까다롭고 늘 공양에 신경을 써야 하는 곳'이라 말한다. 때로 음식에 불만을 지니는 수좌도 있게 마련이어서, 1990년대 태안사 선방을 연 청화 스님은 격의 없이 소참법문(小參法門)을 할 때면 '먹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이와 관련해 송광사에서는 근래 공양 후 들어가는 차담을 공식적으로 없앴다고 한다. 선방에서 인터넷을 찾아가며 청하는 음료수가 자꾸 생기니 함께 마음을 비워나가자는 뜻이다.

선방에 딸린 지대방은 차를 마시며 다담을 나누는 휴식처였기에 '선방의 지대방은 다방(茶房)'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본채에서 준비한 차뿐만 아니라 수좌들이 각자 대중 공양물로 차를 가져와, 스님들이 즐긴 차는 선방에서 가장 신속하게 정보교류와 품평이 이루어졌다. 등장하는 차의 종류는 시대와 사중 형편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이다. 1960~1970년대에는 오미자차 · 구기자차 · 생강차 · 대추차 · 쌍화차 등이 주를 이루었고, 때로 호남지역 스님들이 가져오는 녹차를 맛보기도 했다. 1980년대 이후 선방마다 보이차 · 우롱차를 비롯해 귀한 차들이 등장하고, 근래에는 커피가 선방의 빠질 수 없는 주요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가 하면 식량문제로 힘든 시절에도 선방 스님들을 뒷바라지하는 본채 스님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많았다. 결제 무렵 노스님이 신도 집까지 수십 리 길을 걸어 다니며 선방 대중을 위한 식량과 찬거리를 시주받아 등짐으로 지고 오는가 하면, 쌀밥을 먹이기 위해 먼곳까지 탁발을 나갔다가 일주일 만에 돌아오기도 했다. 자급자족할 형편이 못 되니 결제 철이면 동냥하다시피 선방을 꾸려나가, 힘든 시절에 선방을 운영하는 작은 절의 주지는 사부대중의 존경을 받았다.

안거를 마친 수행자들은 걸망을 메고 산문을 나서서 각자 만행(萬行)을 떠난다. 결제가 선방에서 '깨달음을 구하는 상구보리(上求菩提)의 수행'이라면, 만행은 세상으로 나가 '중생을 교화하는 하화중생(下化衆生)의 포교'라 하겠다. 해제 기간인 산철에도 좌선의 고삐를 놓지 않고 안거에 드는 선객들이 있어 이를 '산철결제 · 산중경제'라 부른다. 산철결제 · 산중결제 하는 선방이 드물어 방부를 들이기가 본철보다 힘들다 하니, 선방 스님들의 수행 열기가 참으로 놀랍다.

〈불교민속연구소 소장〉

(사) 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승정원장 월해
총무원장 법천당 청운
감찰원장 성호 / 종회의장 법륜 / 호법원장 해월
포교원장 덕해 / 교육원장 영호 / 규정원장 혜성
감찰부장 경오 / 호법부장 문경 / 포교부장 장문
규정부장 성철
서울교구원장 법혜 / 대전교구원장 수진 / 충남교구원장 혜성
울산교구원장 정오 / 부산교구원장 법진 / 경남교구원장 불해
경북교구원장 천호

한마음 108종도 일동

본 종단은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근본으로 삼는 종단입니다.

종도모집



(사) 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총무원장 법천당 청운

■총 본 산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전화 055)867-0024.0025 / 팩스 055)867-8009
■서울 총무원 : 전화 02)739-4780, 010-3870-0021

봉선사 개산 1054주년 기념
전국 불교 교리경시대회

www.bongsunsa.net

큰 도전, 제2회 봉선사 불교교리경시대회
말씀 겨루기

일시 : 2023.10.8(일)~9(월) 장소 : 봉선사 청풍루
참가대상 : 전국의 불자 또는 관심있는 누구나
출제범위 : 부처님의 생애, 불교교리 전반, 봉선사 역사
문의 및 접수 : 봉선사 포교국 031-529-1950

*진행방식 : '도전, 범종을 울려라'와 동일
*흰색 상의를 입고 참가하는 모두에게 기념품 증정

교종본찰 봉선사에서는
불교에 대한 관심 증대 및
포교 활성화를 위하여
개산 1054주년 및 한글날을
기념해 제2회 봉선사 전국 불교
교리경시대회 '도전, 큰말씀 겨루기'를
개최합니다.
전국 불자 여러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10월 8일(일)
어린이부 : 오후 1시
청소년부 : 오후 3시
10월 9일(월)
일반부 : 오후 1시

상금(대상)
어린이부 : 50만원
청소년부 : 70만원
일반부 : 200만원
총상금 670만원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
교종본찰 봉선사
12001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선사길32 (부평리)
사무실 : 031-527-1951~2, 포교국 : 031-529-1950, 팩스 : 031-527-8568